

에이즈와 함께 하는 세상을 대비하며

글 최강원 본회 회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

올해는 에이즈가 세계적 이슈가 된지 꼭 27년 되는 해이며, 우리 협회가 창립된지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이 새로운 질병에 대한 연구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던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처음 에이즈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주복 같은 무장을 하고 에이즈 환자를 대하는 의료의 태도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고, 에이즈 감염인과 환자는 격리되어야 할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협회 창립 당시 은행 업무를 볼 때 은행 직원은 '에이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거부해 우리 직원을 몇 시간 동안 창구 앞에서 기다리게 한 웃지 못할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에이즈 문제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에이즈 전파 경로가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손쉬운 에이즈 예방책이 보급되었고,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로 인해 감염인들의 기대 수명은 한 세대 가까이 연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증가 추세는 물론 국내 에이즈 감염 증가 속도로 과거 5년의 고비로 서서히 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이즈는 세계적인 '문제'의 범주에서 벗어나고 되는 것일까요?

과거 에이즈 확산으로 심각한 사회, 문화적, 경제적 타격을 입은 아프리카의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및 러시아, 동남아시아의 에이즈 증가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이들 나라와의 교육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통일 한국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국가의 에이즈 확산 증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감염 증가율, 그리고 누적 감염인 5,000여명이라는 수치에 막연히 낙관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에이즈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에이즈 검사를 주저하고, 내 문제가 아닌 '일부 문제 있는 타인'의 일로 간주하며 에이즈 예방 실천을 소홀히 하는 성문화 풍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의 기반 토대가 되는 성부 지원은 날로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제 겨우 자리잡기 시작한 에이즈 예방의 인프라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낙관으로 에이즈 문제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지원 체계,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노력을 기울여 한다면, 몇 년 내에 우리는 에이즈 1만 명, 2만 명의 시대볼 손 놓고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조금 안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소홀히 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에이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에이즈 예방을 실천하면서 한편으로 감염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통합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인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즈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우리사회를 '에이즈 없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에이즈와 함께 하는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감염인 커뮤니티와 개별 활동가들의 합심된 노력을 전개해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안팎으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성숙해지려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량한 벌판에서 친바람을 맞으며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동안 얻은 새로운 경험과 노하우를 이제는 힘껏 발휘하여 HIV/AIDS 예방과 감염인 및 가족의 복지증진과 인권옹호에 앞장서는 무사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 지원 사업비의 축소로 인해 협회도 사업 형식과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협회가 주도해왔던 에이즈 슈터 사업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하는 원년이 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민간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노력하는 한해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전개했던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냉정하게 평가하여 내실화를 이루어 가는 첫걸음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에이즈예방과 퇴치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정부, 관련 민간단체 및 모든 커뮤니티가 힘을 모아 올해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으며 화상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